



아이가답이다 아트멘토 · 함께할 선생님을 위한 소책자

아이의 생각을 만나면, 나의 수업도 새로워집니다.



아이가답이다 활동 사진 · 인물과 질감 시 편집

읽어 보고, 마음에 남는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5-13세 어린이 전문 미술학원 · 2026년 9월

가르치는 즐거움에 발견하는 즐거움을 더해요.



아이가답이다 활동 사진 · 인물과 질감 시 편집

아이의 예상 밖 제안에 ‘그렇게도 해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수업. 아이가 답이다는 그런 발견이 반가운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것을 전하면서도 아이의 생각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해 보고 싶은지 듣고, 자신의 미술 경험과 아이디어로 길을 넓혀 주는 일. 아트멘토는 그 곁에서 아이의 표현과 자신감을 돕는 교육자입니다.

아이의 생각과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만납니다.

01

아이의 관심

무엇을 해 보고 싶은지 듣기

02

멘토의 아이디어

질문·재료·기술로 가능성 넓히기

03

함께 만든 수업

아이의 선택과 멘토의 개성이 만남

아이가답이다가 지향하는 교육의 흐름 · 개념 도해

같은 재료라도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생님은 그 관심을 따라 질문을 바꾸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자신의 장점을 수업에 보탬 수 있습니다. 완성된 예시 하나에 모든 수업을 맞추지 않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자유롭게 시도하되 안전과 존중이라는 기준은 함께 지킵니다. 혼자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동료와 수업을 이야기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 태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못하겠어요”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답이다 활동 사진 · 인물과 질감 시 편집

‘어느 부분이 어렵게 느껴져?’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구가 낯설다면 사용법을 함께 익히고, 결과가 걱정된다면 작은 시도를 제안할 수 있지요. 같은 말에도 필요한 도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작업을 이어 갈 때 선생님의 도움도 의미를 얻습니다. 혼자 끝내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자기 선택으로 이어 가는 경험을 함께 살핍니다. 이 대화는 교육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오늘의 작은 발견이 내일의 수업이 됩니다.

01 한 장면을 살피기

아이의 말과 나의 도움

02 동료와 나누기

발견한 것과 궁금한 것

03 다음 수업에 보태기

새로운 질문과 작은 시도

아이가답이다가 지향하는 교육의 흐름 · 개념 도해

수업 뒤에 거창한 평가를 남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오래 바라본 재료, 내가 건넨 질문, 다시 시작한 순간처럼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다음 수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와 ‘다음에는 이렇게 해 볼까?’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교육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잘된 장면은 함께 기뻐하고 어려웠던 장면은 함께 살피는, 배우는 교육자의 문화를 지향합니다.

다른 생각이 함께할 때 배움도 넓어집니다.



아이가답이다 활동 사진 · 인물과 질감 시 편집

모든 아이는 고유한 생각과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나누기보다, 그 다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아이도 먼저 제안하는 아이도 자신의 방식으로 참여할 자리를 찾습니다.

멘토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전하고 서로의 제안을 들으며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함께할 방법을 정하고,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힘을 보태는 경험. 우리는 그 안에서 사회성, 공감력, 리더십을 배워 갈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색깔도 수업 안에 남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와 표현을 아이의 관심에 연결해 보세요. 선생님의 전문성은 아이 대신 작품을 완성할 때보다, 아이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줄 때 더 풍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모두 같은 결과’보다 ‘각자의 생각이 담긴 경험’에 있습니다. 기술을 알려 주면서도 아이의 의도를 묻고, 결과와 함께 시도한 과정을 나눕니다. 이것이 함께 지향할 수업의 방향입니다.

부모에게는 아이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무엇을 골랐고 어떤 도움으로 이어 갔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림 한 장으로 마음을 단정하는 것보다, 다음에 더 살피보고 싶은 것을 나누는 대화를 지향합니다.

다른 기관의 수업을 일괄 평가하려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이가답이다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내하는 글입니다.

어떤 미술을 좋아하시나요? 그 즐거움을 아이의 생각과 만나게 한다면 어떤 수업이 가능할까요? 자기소개서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 제목에 ‘아트멘토 지원’과 성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좋아하는 미술과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 이 소책자에서 마음에 남은 생각을 편하게 담아 주세요. 꼭 멋진 교육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도우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모집 여부와 지원 자격, 근무 일정·보수 등 세부 조건은 별도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ttart0101@naver.com

02-6497-0101

홈페이지에서 더 살펴보기 →